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7년 1월 22일 (제882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만족해야 행복하다

어느 자매가 상담을 왔다. 그는 울면서 내게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정말 열심히 살 거거든요. 그런데 가난을 못 벗어나요. 제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하는 것이다. 나는 그를 위로하고 난 뒤에 이렇게 물었다. “너 집 있니?” “네.”, “그럼 차는 있니?” “소형차 있어요.”, “직업도 있지?” “네, 있어요.”, “그런데 왜 가난하다고 하는 거니? 얼마나 가져야 부자라고 생각할 거니? 문제는 만족을 모르는 네 마음에 있단다.” 라고 말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지 아는가? 만족을 모르는 자다.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한 자는 언제나 불행하다. 이놈의 ‘더, 더’는 끝이 없다. 말 타면 종 두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게 사람이다. 그러나 행복은 얼마나 가졌느냐의 소유의 문제도, 성취의 문제도 아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때 행복이 따라온다. 선진국이 아닌 빈민국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의외로 높은 것이 그 증거다.

‘지족가락(知足可樂)이오 무탐즉우(務貪則憂)니라’고 명심보감(明心寶鑑)에 나왔다. ‘만족할 줄을 알면 즐거울 것이요, 탐욕에 힘쓰면 근심이 있을 것이다’는 의미다. 성경 또한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고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

다윗을 보자. 그는 왕일 때 수많은 처첩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만족하지 않아 남의 아내까지 취한다. 그러나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도다”(시23:1) 라고 고백할 때의 다윗은 왕으로서 풍요와 안락을 누릴 때가 아니었다.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였다. 그런 그가 왜 이런 시를 썼을까?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했기에 충분히 행복했던 것이다. 행복의 커트라인을 없앴기 때문에 행복했다. 만족하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 행복이 온다. 상대적 빈곤에서 허덕이지 말고,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자. 하나님이 더욱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기도는 하나님 자녀만의 특권이다

성경에 쉬지 말고 하라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5:17).

인간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찬송을 꼭조 있는 기도라 한다. 결국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쉬지 않고 영적 호흡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끊임 없는 교통인 셈이다.

목사님은 예배를 인도하실 때마다 모든 성도들로 기도하게 하시며 반드시 외치는 말씀이 있다.

“기도하지 못하는 영혼은 죽은 영혼이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약점이 있어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녀에겐 그야말로 꼼짝하지 못하신다. 울부짖으며 강청하는 자녀의 기도

에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목사님께서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 인생의 새로운 2막, 다모작 인생을 강조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갖고 있기에 비록 지금까지는 실수하고 넘어진 실패자였어도 다시 인생의 역전으로 새로운 삶의 장을 열어갈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사

“과거는 부도난 수표다.”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라.”

지나간 시간의 잘잘못에 연연하여 새로운 날을 그르치지 말라는 격려의 말씀이다. 비록 지난해 가졌던 꿈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삶을 새롭게 축복하시려 작정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우주만물을 다스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다

다!” 호흡을 못하니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지는 놀랍고도 영광스런 특권임을 알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에 봉착하여 낙심하고 절망할 때, 다른 길이 없다. 그냥 운명에 순응하고 살거나 안타깝지만 스스로 인생의 종지부를 찍거나 한다. 역전의 길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눈이 있으나 소경인고로 길을 찾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비록 삶에 암초를 만나 파선지경에 이르렀다 해도 구조될 희망이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바로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

실이다.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에게, 여섯 남자를 데리고 살던 우물가의 여인에게, 세리 귀신에 사로잡혀 희망이 없던 청년에게, 중풍병에 걸려 움푹달락다 못하던 환자에게, 소경 바디매오에게, 나아가 귀머거리, 병어리, 앉은뱅이를 비롯한 각색 병든 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제시하는 장면은 성경에 셀 수 없이 많이 나온다. 죄에서 돌이켜 이제 지난 일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라는 소망의 메시지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새해가 되었다.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침륜에 빠져있으면 길이 없다. 내가 일어나야 한다. 내가 연약한 무릎을 세워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 내가 회개해야 한다. 내가 그분께 부르짖어 간구해야 한다. 그중에도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세상 끝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마28:20).

어떤 시련과 도전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해도 낙망치 말고 기도도 하나님을 움직여 새로운 역사의 맥을 긋는 새해가 되기를 바란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막10:46~52)



네 인생을 1막으로 끝낼 것인가?

인생은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연극과 같습니다. 그런데 연극을 보면 1막으로 끝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평생 연극을 안 보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성탄절마다 하는 성극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성극도 보통 3막까지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보면 1막에서는 상황이 전개되고, 2막은 그야말로 내용이 극에 달하고, 3막에 가서는 결말이 나는 형식을 취합니다.

인생도 1막으로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2막도 있고, 3막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성공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를 볼까요? 그의 삶은 3막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막은 애굽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고, 2막에는 도망자로 광야에서 양치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종식될 줄 알았지만 그에게는 3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라는 어마어마한 삶이 그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아휴, 나는 1막, 2막 그런 거 잘 몰라요.”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농사기법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나라는 주로 1모작이지만, 날이 따뜻한 동남아시아에서는 2모작, 3모작은 기본입니다. 1년에 두서너 번 수확을 한다는 겁니다.

인생은 다모작입니다. 어떤 인생은 2모작이고, 어떤 인생은 3모작일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농사가 언제나 풍년이면 좋겠지만, 때론 태풍도 오고, 가뭄도 오고, 홍수도 오는지라 늘 풍요로운 수확만을 거둘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다들 살아보셨으니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나 한 번 흉년이 왔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된 농사를 태풍이 맞아갔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농사를 지으면 됩니다.

충격에 주저 앓을 것이나 움직이고 변화될 것이나

요셉의 경우로 볼까요? 요셉은 3모작 인생을 살았습니다. 1모작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호강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시간은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형들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 그야말로 고생이란 고생은 다하게 됩니다. 그대로 끝났다면 비극적인 삶이었겠지만, 그 와중에도 그는 3막을 늘 꿈꾸었습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다.’ 라고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그에게 3막의 인생이 전개됩니다.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대업을 이루는 총리대신이 된 겁니다. 이것이 요셉만의 인생일까요?

지금 힘들니까? 고생해서 일궈놓은 것이

홍수에 다 쓸려버렸습니까? 인생에 비가 안 내려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낫 놓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인생의 다가 아닙니다. 힘을 내세요. 용기를 가지고 다시 농사를 지으세요. 기회는 준비한 자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저는 이제 3모작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1모작은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적으로 살았던 시절입니다. 성공과 쾌락이 전부였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저는 완전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감히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종으로의 삶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힘든 시기였습니다. 시련이 폭풍처럼,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거기서 포기했다면

오늘 날의 예수수

중심교단은 없습니다. 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

다. 다시 무를 세워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세계 70여 개국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2모작입니다. 저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잠시 저를 돌보며 3모작을 꿈꿉니다. 인생의 3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년, 더 큰일을 이루려고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준비해야 합니다.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일어나 다시 농사준비를 해야 합니다. 2막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순조롭게 풍년만을 맞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목에 힘주지 말고, 있을 때 준비하고 다져야 합니다. 흉년을 대비한 요셉처럼 말입니다. 다시 풍년을 맞아 베푸는 삶,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순전한 삶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이번에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을 위해 인생을 골프에 적용해볼까요? 골프는 18홀까지 있습니다. 골프를 치다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공이 날아갈 수도

있고, 호수에 빠지기도 하고, 모래구덩이 위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1홀에서 잘못했다고 그 날의 골프 전체를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2번째 홀에서 잘 하면 됩니다. 3홀에서 더 잘하면 되고, 그렇게 18홀까지 가다보면 남들보다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두고두고 하는 얘기지만, 박세리 선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1998년 US 여자 오픈에서 박세리는 1, 2위를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그만 박세리 선수가 친 공이 연못 단덕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주저 없이 맨발로 연못에 들어가 공을 쳐냈고, 결국 극적으로 우승했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잘 될 때도 있지만, 진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쉽 게 풀릴 일 이 진짜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박세리 선수처럼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또 기회가 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 바디매오는 2째 소경입니다. 그의 아버지도 소경이었습니다. 그대로 살았다면 바디매오는 비극적인 1막만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늘 기대했습니다. 반전의 삶을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길목으로 나갔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에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고,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2막의 인생이 열린 겁니다. 그 후의 그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마가복음 1장의 귀신들렸던 자, 요한복음 4장에 여섯 남자를 데리고 살던 여인, 요한복음 5장에 38년 동안 병을 끼고 있던 자 모두 2막의 인생, 2모작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삶으로 변화하고 싶습니까? 이번 막에서는 잘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인생의 방법과 꾀를 버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힘으로 다 해봤지 않습니까? 당신의 지혜도 다 써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알고 그 앞에 나가고, 그 분께 매달려야 합니다(렘33:2). 그렇다고 손 놓고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나갈 때 풍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해피엔딩이 되고, 희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33:3).

한번 다운되었다고 K.O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절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의 인생을 보세요. 그는 왕으로서의 삶이 주어졌으나 하나님을 떠나더니 결국 비극적인 파국을 맞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나오미, 힘들었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며느리 룻을 통해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당신은 몇 막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몇 모작을 이루고 있습니까? 몇 홀에 공을 날리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든 늘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나가야 합니다. 또한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2017년, 이제 시작입니다. 얼마든지 다시 일어나 수확할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9:23)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시편 기자의 질문(시8:4, 144:3)은 인류가 존재하기 시작한 이래 계속 제기되어왔다. 기원전 4세기경 헬라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는 유명한 수수께끼를 밀포 이신전에 남겼다고 한다. 이 물음에 대하여 역사상 수많은 종교가, 철학자, 사상가들이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인간을 정의하려고 했으며, 그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공허한 정의들이다. 왜냐하면 오직 인간의 실존 하나만을 가지고 연구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 분과 교제하며 사랑 받고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이 사실을 배제한 고민은 답과 떨어질 뿐이다.

인생은 사람이 살아있는 기간이라는 뜻으로 인간의 수명, 인간의 생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창세기 5장은 옛날 사람들의 수명에 대해 언급한다. 그들의 수명은 많게는 969세에 죽은 므두셀라부터 적게는 365세에 떠난 에녹까지, 인간의 수명이 백년도 안 되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장수를 누렸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하시는 장면이 나온다(창6:3). 인생의 기간을 줄이는 것이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렇다면 생명의 기간을 조정하는 자가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그 생명을 부여받아 사는 사람들은 생명의 기간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한다. 자신의 생명

을 단 1초도 마음대로 늘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노예 한명을 뽑아 그를 3일동안 왕으로 섬기는 풍습이 있었다. 선발된 노예는 왕복을 입고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다. 문제는 기간인데, 노예에게 복된 날은 고작 3일에 불과했다. 이 3일이 지나면 노예는 제단에서 처참한 희생물로 죽어야 했다. 3일만 지나면 죽을 인생에겐 그 어떤 것도 즐거움이 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100년도 못되어 죽을 인생 역시 깊이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영생의 보장이 없는 인생이 다 이와 같으리라.

성경에서 인간의 수명이 수백 년씩이나 줄어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귀어야 할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이 세상과 벗하는 육적인 존재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명은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과 사귀를 갖기 위한 시간이다. 오직 인간은 전능자를 경외하며 그 분과 관계 맺을 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

과학은 인간을 하나의 생물적 존재로 보고, 철학은 문화적 존재로 보며, 종교는 자연적, 운명적 존재로 보지만, 율법은 인간을 구원이 필요한 죄인으로 정의한다. 죄인은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게 되니, 나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존재, 곧 예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신기류 목사
abba7777@naver.com

:: To Be Succeeded ::

대의를 위한 자기 경영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성산 장기려, 그리고 유한양행의 창업주인 유일한 박사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암흑의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6·25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겪은 세대로서 애국정신과 민족 사랑이 남달랐다. 그리고 그 정신을 기업경영과 병원경영에 그대로 반영, 오직 병들고 가난한 우리 민족을 의약품과 의술로 살리기에 힘쓴 인물들이다. 두 사람은 자신이 가진 전부를 바치다시피 하여 처음 가졌던 민족 사랑의 신념을 죽는 날까지 지켰다. 생전에도 유한양행을 개인과 가문의 것이 아닌 사회 모두의 것으로 공식화했던 유일한 박사는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날 때조차도 4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세상을 놀라게 했다. 장기려 박사 역시 돈이 없어 치료비를 내지 못하는 이들을 병원에서 몰래 내보내거나 자신의 월급으로 치료비를 대신 내주는 식의 삶을 살았다. 또한 그들은 자기경영에 매우 철저했다. 몇 달 걸려 세무조사를 해도 1원도 오차가 없는 깨끗한 기업경영, 수술결과 허리를 못 쓰게 된 환자에게 자신의 급여를 털어 매달 생활비를 보태며 사죄하던 진정성 넘치는 병원경영은 그들이 남다

르게 철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의무를 이행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대의를 위해 희생, 헌신하는 인생철학과 철저한 자기경영으로 완성된 그들의 숭고한 삶은 세월이 흘러 국경을 넘어서까지 존경의 대상이요 귀감이 되고 있다.

신년, 크고 작은 계획과 목표를 향해 첫 걸음을 내딛고 있는 지금, 내가 뛰는 이유와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철저한 자기관리와 경영의 목적이 개인적인 성취와 만족을 넘어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경지에까지 이르러 많은 이들을 나의 그늘에 쉬게 할 수 있다면, 내 삶 또한 후배, 후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빛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철저히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인 되었던 전 인류를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었음을 기억하여, 나 역시 다른 이들에게 한 줄기 빛 되는 멘토가 되기를 꿈꾸고 소망하자.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그 소망 아래 자신의 삶을 철저히 경영하기에 힘쓰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2017년이 되리라.

이국진
joyful_jina@hanmail.net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살다보면 이상한 사람도 마주치게 되고 좋지 못한 일에 얽여서 고생하는 때도 있다. 그럴 때 분노하고 좌절한다면 그것은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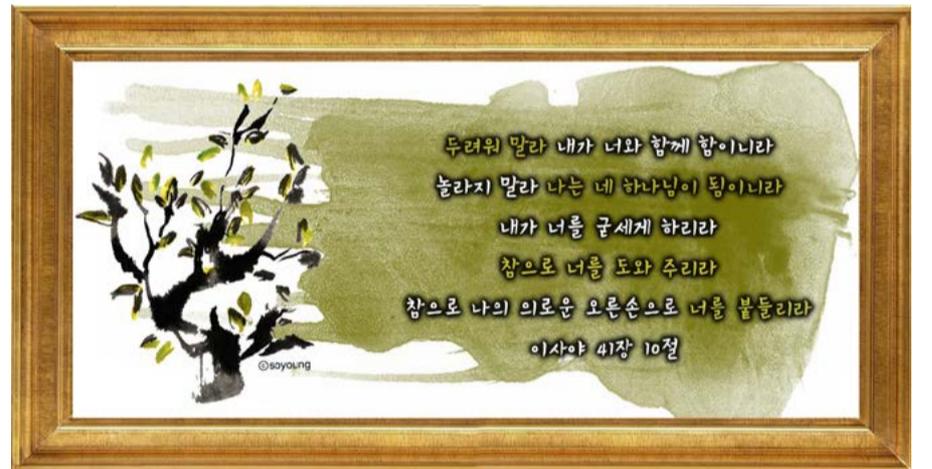
사회에는 법이 있다. 죄를 지은 자는 법에 따라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으니 억울함과 부당함을 법 앞에 호소하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럴 때 어찌해야 할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신해야 한다. 법대로 처리하여 법의 무서움을 가르쳐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또 다른 길이 있다. 성경에 나온 대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는 것이다(마5:39).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아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으므로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

사무엘하에서 암논이 다말에게 죄를 지었을 때 암살품은 이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스스로 분노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암논을 죽인다. 이후 암살품은 다윗에 반역하였다. 다윗은 요압에게 암살품을 살리라 했지만, 결국 암살품은 다윗의 명령을 어긴 요압에게 죽임을 당한다. 스스로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살인을 한 암살품이 다윗의 명을 어기고 스스로 판단한 요압의 손에 죽은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우리의 인생에서 암논과 같이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때에 어떻게 할지는 스스로에게 달려있다. 다윗과 같이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암살품과 같이 분노하여 스스로의 정의를 세울 것인지 말이다.

김성일
cre8tor@naver.com



:: 귀를 기울이세요 ::

천국 소망!

올림픽공원에서 예수중심교회 유초등부를 다니던 나에게 어느 날, 주일학교 선생님은 온갖 보석이 가득하고 찬란한 천국을 설명해주시더니 천국을 상상하여 그리라고 하셨다. 그곳이 좋은 곳인 줄 알지만 표현하러니 쉽지 않았다. 열심히 생명의 나무 같은 것을 그리던 나는 선생님에게 뜬금없이 질문을 하였다. “선생님, 천국은 너무 지루하고 따분한 곳일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했니?”, “저는 뭐든지 좋은 것을 해도 금방 질리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매일 먹어도 금방 싫증이 나고 아무리 재밌는 놀이를 해도 하루 이틀이 지나면 금방 질려요. 아무리 천국에 좋은 것, 행복한 것만 가득해도 전 금방 따분해질 것 같아요.” 그 때 선생님께서는 나를 타이르시며 “천국은 지루하거나 따분한이란 감정은 아예 없단다. 그곳은 아픔과 슬픔이란 감정도 없고 눈물도 흘리지 않으며(계21:4),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께 경배하며 기쁨과 행복감만 가득한 곳이란단다.” 라고 하셨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의 감정 중 천국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천국을 바라

고 소망하는 마음이 어린나이지만 가득하여졌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삶의 여러 문제에 치이다보니 어느 순간 나에게 천국 소망이라는 단어는 빛이 바랜 듯 희미해져갔다. 그 때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서는 나를 인치시듯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왕 노릇 합시다.’ 라며 천국 소망을 끊임없이 심어주셨다.

천국!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난다.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매일 볼 수 있다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기쁨일 것이고(계22:4),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기며(계19:1~4, 계22:3), 슬픔과 아픔, 고통과 사망도 없고(계21:4), 성경에서만 보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모세, 사도바울 등과 교제하고, 이들과 함께 왕 노릇한다니 참으로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사랑하는 예수중심교인 여러분! 삶의 껍떡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본향을 잊지 마시고 전도와 주의 일에 더욱 충성하여 더 큰 상급과 영광을 누리시고 사는 천국 시민이 됩시다!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 ::

:: 참된 깨달음 ::

자신이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

시카고의 어느 고등학교에선 일정 수의 과목을 통과해야만 졸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타 학교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어떤 과목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 낙제(failure)가 아닌 '아직(not yet)'이라는 이름의 학점을 준다는 거지요. 참 멋지죠. 심리학자 케를 드릭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힌을 발견하는데요. 낙제를 받은 학생은 스스로를 형편없다고 느끼지만, '아직'을 받은 학생은 자신이 배우는 과정에 있다는 걸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녀는 이것을 '아직'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낙제냐 아직이냐, 과목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은 전혀 다르지요. 한쪽은 그것을 당장의 실패로 보기 때문에 좌절하게 만들고, 한쪽은 그것을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실제로 낙제를 한 아이들은 자신보다 못

한 아이들과 어울리며 위안을 삼거나 실수로부터 도피하려 들었고, 아직 발전 중이라는 믿음을 가진 학생들은 실수를 통해 배우고 고쳐나가고 더 나아가 어려운 문제를 괴롭고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아직'이란 단어 하나가 아이들에게 자신감과 인내심을 심어주고 심지어 사고방식까지 바꾸었다고 하니 정말 놀랍지요.

문득 뒤돌아보니, 저는 저에게 너무 많은 낙제점을 주었더라고요. 공모전에서 또 떨어지다니 넌 낙제야. 저 회사에서 떨어지다니 넌 낙제야. 네 아이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어. 넌 낙제야. 넌 영어 절대 못해 낙제야.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못 미더워하는 사람, 슬프게도 제 자신이었던 거예요. 나는 낙제한 게 아니라 아직 때가 안 된 것뿐이라는 걸 받아들이기까지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완성품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

우리는 아직 미완성되었고 여전히 만들어지는 과정 중이지요. 그래서 무언가에 통과하지 못했다는 결과에 무너져 내리거나 낙제라는 무서운 낙인을 벌써부터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니까요.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아직'의 가능성은 앞으로도 많이 있으니까요. 어쩌면 새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을 좀 더 믿어주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믿음을 초월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 다음에는 더 잘 할 수 있다는 걸 믿어주세요. 실패한 게 아니라 아직 더 많이 배우는 중이라는 걸 믿어주세요. 자신이 발전할 수 있다는 걸 믿어주세요. 해낼 수 있다는 걸 믿어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믿는 것처럼 당신도 자신을 믿어주세요. 그 믿음으로부터 작년과 다른 당신이 시작될 겁니다

신은혜
dopal0203@naver.com

말이 나를 만든다

유대적인 중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말이 입안에 있으면 네가 말을 지배하고,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말이 너를 지배한다."

사실 우리의 뇌는 자신이 말한 언어를 의식 속에 넣어 자신의 인생에 반영시키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실과 언어를 구별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입으로 '짜증나'를 반복하면 그 소리가 귀를 통해 뇌로 전달되고 뇌는 '짜증나 있는 것인데 왜 멀쩡한 척 하느냐' 하면서 온 몸에 불쾌한 스트레스 호르몬을 쫓 뿌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행복한 인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언어를 좀 더 의식적으로 선택해서 사용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부자가 된 비결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빌게이츠의 답변입니다. "나는 매일 스스로에게 두 가지의 말을 반복한다. 그 하나는 '웬지 오늘은 나에게 큰 행운이 생길 것 같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성공하는 사람은 말부터 다르다고 합니다. 그들의 말은 늘 확신에 차있고 긍정과 낙관으로 가득합니다. 성공했기에 말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말이 다르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누에가 자기 입에서 실을 뽑아 고치를 짓는 것처럼 사람은 일상에서 내뱉는 말로 자기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존재입니다. 부정적인 언어가 입에 뱀 사람은 고통과 괴로움의 인생 집을 짓게 되고, 긍정적인 언어가 입에 뱀 사람은 행복과 번영의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말버릇은 그야말로 버릇으로 출발하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은 부패랑 같아서 결국 나에게 되돌아와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그대로 명증시킵니다. 말에는 창조와 힘이 숨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2017년도! 하루에 딱 5분만 자신을 향해 축복을 선포하고 읽어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김정옥 전도사
jcc0115@naver.com

:: Global Study ::

♣ 적보다 무서운 것이 의욕을 상실한 지휘관이다

A leader who lost passion is more fearful than the enemy.
比敌人更可怕的是失去欲望的指挥官。

♣ 전의를 상실한 병사에게에 뱀 총은 총이 아니고 짐이다

A soldier with a gun who lost his fighting spirit becomes a burden.
失去战意的士兵肩上扛的不是枪,而是担子。

:: 성도 간증 ::

자궁암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수지교회 김현숙 집사입니다. 저를 전도하신 분은 현재 원주 예수중심교회 담임으로 계신 김찬수

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전도와 예배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자궁암!'

병원 4군데를 돌아다녔는데, 동네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눈물만 나오더군요. 그 와중에도 기도와 전도는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용인터미널과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한쪽 눈은 보이지 않았고, 나머지 한쪽 눈도 진물이 나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

다. 면역력은 떨어지니 대상포진까지 왔습니다. 전도할 때 저의 외침은 간절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며 욕하는 사람들,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로 제 마음은 아팠습니다. '저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갈 텐데...' 그 순간 제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처음으로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도 마음이 아프니? 나도 마음이 아프단다."

지금도 그 음성이 생생합니다. 나의 생각까지도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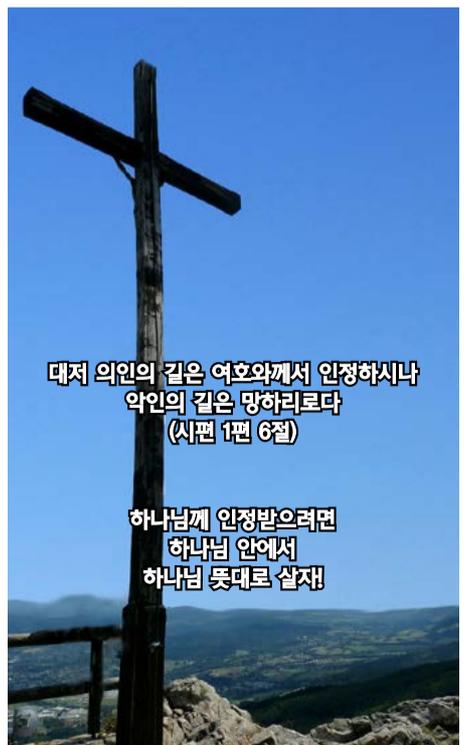
저의 병은 날로, 날로 나빠졌습니다. 이시대 목사님께 저의 병을 고하고 전화로 기도를 받았습니

다. 암 선고를 받고 한 달 후 여름산상집회가 있어 장성 예수중심기도원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수술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지요, 살리신 이도 아버지이지요니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아픈 몸으로 여름집회 한 달 동안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였습니다. 낮에는 주방에서, 밤에는 같이 주방 봉사하는 집사님들의 손에 부축되어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의 안수와 기도가 저를 살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후 어느 순간 주님은 나의 눈도 치료하셨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암도 언제 사라졌는지 깨끗해졌습니다. 당뇨합병증으로 인해 인공혈관을 수술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통증이나 아픔은 전혀 없었고 간호사나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올 3월부터는 이정미 전도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철야예배 때는 서울로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청소 봉사부에 들어갔습니다. 일거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상급도 쌓고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우리가 정에 웃음을 되찾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지교구 김현숙 집사

목사님 내외분이십니다. 제가 처음 예수중심교회에 나온 것은 95년도 금요일예배였습니다. 아이보리 양복을 입으시고 단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인도하시던 총회장 목사님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목사님, 사랑합니다. 교회를 나가면서 자꾸만 예배가 기다려지고 어느 순간 성경 말씀이 살아서 나의 삶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두 살 세 살이었는데,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큰 아이는 언어치료사로, 둘째는 속기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자니 저는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자연 예배에 소홀해졌습니다. 그러나 임신 당뇨로 인해 건강이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르다 (시편 1편 6절)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자